

스테아린산아연

석유화학공장에서 프로세스의 활제로 사용되는 스테아린산아연은 내수의 한계로 공급 과잉현상을 보이고 있고 원료가격이 상승하는 등의 여건으로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이다.

또 채산성 악화로 생산기업들이 기술개발 등에 투자를 소홀히 하고 있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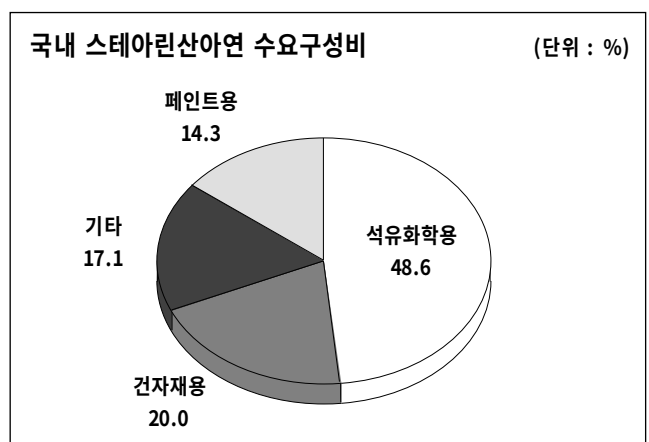
그러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특수용도 개발 및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가 요구되고 있다.

국내 스테아린산 생산기업은 송원산업과 신원화학, 단석산업, 두본산업, 서울화학 등이 있다.

송원산업은 연산 6000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월 300여톤을 생산, 이중 270여톤은 내수에 공급하고 30여톤은 일본 등에 수출하고 있다.

신원화학은 3500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월 150톤을 생산, 130톤은 내수에 공급하고 나머지는 대만 등에 수출하고 있다. 특히 신원화학은 특수용 고품질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.

국내 스테아린산아연 수요현황 (단위 : M/T)	
구 분	수 요 량
삼성종합화학	250
현대석유화학	250
L G 화 학	1,800
한화종합화학	300
호남석유화학	96
유 공	96
기 타	300
합 계	3,092



두본산업은 연 3000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내수 및 수출에 주력하고 있으며, 단석산업과 대근산업도 월 20~30여톤을 생산하고 있으며, 서울화학은 페인트업체에 소량 공급하고 있다.

수입은 목공용과 도료용, 열경화성수지용 등으로 이태리와 독일 등에서 소량 수입되고 있다.

스테아린산의 기업별 수요량은 LG 화학이 활제용으로 월 150톤을, 한화종합화학이 월 25톤을, 유공과 호남석유화학이 각각 월 8~10톤을 사용하고 있으며, 기타기업이 연간 300여톤을 사용하고 있다. 용도별 수요구성을 보면 94년기준 석유화학용이 48.6%, 건축자재용 20.0%, 페인트용 14.3%, 기타가 17.1%를 차지하고 있다.

스테아린산아연은 원료인 팜유에 따라 가격이 크게 좌우되는데 최근에는 동남아시아지역에서의 팜유 작황이 부진해 원료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스테아린산아연의 가격은 최근 수년간 정체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95년 상반기기준 Kg당 1300~1400 원선에 거래되고 있다.

< 96 화학연감 >